



“아파, 고것 참 신기하구만.” KT의 사회공헌 프로젝트 ‘기가아일랜드’ 덕분에 정보통신기술이 숨쉬는 섬으로 변신한 전남 신안군 임자도 주민이 농업복합환경시스템이 적용된 비닐하우스에서 스마트기기를 이용해 농작물을 관리하고 있다. 사진제공 | KT

KT 기가아일랜드 시대 섬 생활이 확 달라진다

전남 임자도 ‘기가아일랜드’ 선포식

교육격차 해소 위해 화상멘토링 제공
주민복지센터 일부 기가사랑방 구축
보건소·농가 등에도 ICT솔루션 도입

1004개의 섬으로 이뤄져 일명 ‘천사의 섬’이라 불리는 전라남도 신안군의 한 섬인 임자도가 정보통신기술(ICT)을 만나면서 주민들의 생활이 확 바뀔 것으로 보인다. KT의 사회공헌 프로젝트 ‘기가아일랜드’ 덕분이다. KT는 7일 임자도에서 기가아일랜드 선포식 및 현판식을 가졌다. 기가아일랜드는 도서 지역에 KT의 기가인프라 기반 미래 융복합 솔루션을 적용해 주민 생활을 편리하게 만들어주는 프로젝트. 섬 주민들은 이를 통해 청소년들의 교육은 물론 노인들의 건강, 농가의 효율성까지 챙길 수 있게 됐다. 이날 행사에는 정부 및 KT 관계자 외에도 임자도 주민 등 100여명이 참석하는 등 큰 관심을 모았다.

●언어지도부터 건강서비스까지

섬 주민들은 KT의 융복합 솔루션을 통해 다양한 서비스를 받는다. 먼저 KT는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양방향 온라인 멘토링 플랫폼 ‘KT드림스쿨 멘토링 시스템(www.ktdreamschool.org)’으로 임자도 학생들에게 화상멘토링 교육을 제공하고 있



KT가 7일 임자도에서 ‘기가아일랜드’ 선포식 및 현판식을 열고 있다. 왼쪽부터 오기섭 KT 목포지사장, 장형철 신안군 임자면장, 정창일 진리이장, 강성주 미래창조과학부 정보화전략국장, 최영익 KT CR지원실장, 박형철 KT 전남고객본부장, 김보태 KT호남네트워크운영본부장. 사진제공 | KT

다. 서울시, 전남교육청과 협력해 18개국 유학생 20명과 임자도 초등학교 20명을 연결해 언어지도는 물론 문화교류도 진행하고 있다. 생일을 맞은 자신의 멘티를 축하하기 위해 서울에서 중국인 유학생이 내려 오기도 했다.

문화격차 해소를 위해 주민복지센터 일부를 새롭게 꾸민 ‘기가사랑방’도 주민들의 관심을 독차지할 것으로 보인다. 이곳에선 초고화질(UHD)TV와 화상회의시스템으로 원격 문화강좌를 듣고, 영화 등 콘텐츠도 즐길 수 있다.

어르신들의 건강을 위한 서비스도 도입한다. 노인층이 많다는 사정을 감안해 정기 검사가 쉬운 당뇨 검진 솔루션을 제공하는 것. 요탁서비스는 소변으로 간단히 건강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 KT는 신안군에 단말기 20대를 기부하고 보건소와 협력해 군내 1만여명 노인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에너지 자립을 위한 태양광 시스템과 실시간 모니터링 시설을 구축하는 한편 농가에도 ICT솔루션을 제공해 비용 절감과 생산성 향상을 돕는다.

●후속 프로젝트 추진

이번 기가아일랜드 구축은 KT가 5월 ‘1등 KT’와 ‘기가토피아’ 실현을 선언한 뒤 공개한 첫 번째 결과물이다. 인터넷 이용률이 낮은 도서 지역 중 연내 기가인터넷 공급이 가능한 임자도를 제1호 대상으로 선정했다. 지난 달 KT는 신안군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민관합동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해 왔다. 특히 해당 지역에 필요한 ICT솔루션들을 사전 분석한 뒤 교육과 문화, 에너지, 의료, 그리고 지역경제 등 5개 분야를 해당 지역에 필요한 솔루션으로 선정했다.

KT는 향후 그룹사와 함께 기가아일랜드 후속 프로젝트를 추진할 계획이다. 청학동과 민통선 내 대성동을 비롯해 기가인프라와 ICT솔루션이 필요한 지역을 추가 발굴한다는 방침이다. 신안(전남) | 김병근 기자

dionys@donga.com 트위터@kimyke76

대명리조트 ‘단풍 명소 3곳’ 한정 패키지상품 선보

가을 단풍이 무르익으면서 전국의 단풍 명소마다 사람들이 몰리고 있다. 대명리조트는 9일 한글날이 있는 황금연휴를 앞두고 전국의 대명리조트 체인 중 가을 단풍이 매력적인 명소 3곳을 골라 12월18일까지 한정 운영하는 패키지를 내놓았다.

설악산 국립공원에 인접한 ‘밀피노 골프 앤 리조트’는 가을이면 붉게 물드는 단풍으로 장관을 이룬다. 가을 풍광 속에서 여유 있는 조식을 즐길 수 있는 ‘조식 패키지’를 출시했다.

단양8경의 절경과 단풍을 감상하며 안락한 리조트에서 실컷 있는 휴식을 즐기고 싶다면 대



명리조트 단양(사진)의 ‘아쿠아월드 패키지’가 있다. 리조트 객실, 아쿠아월드 2인 입장권, 조식 2인으로 구성했다.

대명리조트 변산은 단풍으로 유명한 내소사, 부안 마실길 트레킹 코스를 함께 즐길 수 있는 곳이다. 단풍여행 후에 리조트에서 가족과 함께 즐길 수 있는 ‘BBQ 패키지’를 내놓았다. 합리적인 비용으로 볼거리와 먹을거리를 동시에 만족할 수 있는 맞춤형 패키지다. 객실(리조트 또는 호텔), BBQ 커플세트 2인, 조식 2인으로 구성했다.

김재범 전문기자 oldfield@donga.com 트위터 @kobakuid

4WD·가솔린 SUV 실 연비가 ‘19.2km/ℓ’ 라고?

〈정부공인 표준복합연비: 12.6km/ℓ〉

■렉서스 콤팩트 SUV ‘NX300h’ 시승기

하이브리드의 장점 ‘EV 모드’ 최대한 활용
흔들림 감지·억제…정숙하고 안락한 주행
넉넉한 실내 공간·첨단 편의사양도 대만족

‘프리미엄 스포츠 어번 기어(Premium Sports Urban Gear).’

다소 길고 어렵지만 렉서스는 브랜드 최초의 콤팩트 SUV인 ‘NX’ 시리즈의 핵심을 이렇게 정의했다. 렉서스라는 고급 브랜드의 프리미엄, 스포티한 주행 성능, 감각적이고 도시적인 스타일링까지 모두 아우르는 차라는 의미다. ‘NX 300h’는 렉서스의 하이브리드 강화 전략에 따라 내년 출시 예정인 2.0리터 가솔린 터보 모델 NX 200t에 앞서 출시됐다. 글로벌 베스트셀링 하이브리드 세단 모델인 ES300h와 함께 렉서스를 대표하는 하이브리드 쌍두마차 체제를 구축하겠다는 것이 렉서스의 복안. 6일 서울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공원에서 출발해 영종대교, 송도 국제 어린이 도서관을 거쳐 인천 그랜드 하얏트 호텔까지 총 137km 구간에서 하이브리드 모델인 ‘NX300h’를 시승했다.

●독창적이고 감각적인 스타일링

차량이 가진 가치나 기술에 대한 브랜드의 어떤 설명보다 앞서는 것은 신차를 보는 첫 느낌이다. NX300h의 첫 인상은 누가 봐도 ‘매력적’이라고 느낄 만큼 신선했다. 실물이 아닌 콘셉트 카가 처음의 그 느낌 그대로 시장에 막 뛰어나온 듯하다.

렉서스의 카토 수석 엔지니어는 NX300h의 스타일링에 대해 “개성이 강하고 스포티한 외관 디자인과 SUV로서의 기능성이 뛰어난 인테리어의 양면, 그리고 다양한 첨단 기술로 세심하게 다듬어낸 기능과 성능의 결과물”이라고 설명했다. 그 말처럼 실내외 디자인에서 느끼는 감성 만족도는 높았다.

인테리어 디자인도 렉서스답다. 슈퍼카인 LFA와 IS에서 시작된 렉서스 스포츠 인테리어 아티네틱티를 계승했는데, 렉서스 고유의 우드트림, 부위별 질감에 차이를 둔 가죽 인테리어, 금속을 깎아낸 듯한 질감, LFA에 사용되는 코스메틱 볼트로 고정된 무릎패드 등에 이르기까지 고성능 머신이 가진 구조미와 기능을 최대한 이끌어내는 소재를 사용했다.

첨단 실내 기능도 돋보인다. 스마트폰과 같이 손가락으로 조작하는 첨단 터치패드식 차세대 리모트 컨트롤러(렉서스 최초), 케이블 연결 없이 휴대용 기기를 올려놓는 무선 휴대폰 충전시스템(렉서스 최초), 콘솔박스 뚜껑의 뒷면에 감춘 화장거울 등을 장착해 감성 품질을 높였다.

●콤팩트하면서 넉넉한 실내 공간

콤팩트 SUV지만 스마트한 패키징을 통해 실내공간과 트렁크공간에 있어서는 동급 최고의 수치를 실현했다. 뒷좌석을 눕히지 않고도 9.5인치 골프백을 최대 4개까지 수납할 수 있는 등 일



개성 강하고 스포티한 외관 디자인, 4륜구동 SUV로서의 뛰어난 기능성, 렉서스 브랜드의 다양한 첨단 기술의 조합된 결과물이 바로 NX300h다. 연비에만 초점을 맞춘 하이브리드 모델에 그치지 않고 뛰어난 퍼포먼스까지 겸비했다는 점도 매력적이다.

사진제공 | 한국도요타자동차

상에서 아웃도여까지 다양한 상황과 다채로운 용도에 대응할 수 있다. 또 60:40으로 분할이 가능한 접이식 뒷좌석에는 파워폴딩 기능(세계최초, Executive 모델)을 적용해 시트 좌우, 운전석 또는 트렁크에 있는 버튼만 눌러서 뒷좌석을 다양하게 움직일 수 있다.

●놀라운 실 연비와 스포티한 주행 성능

NX300h는 가변식 4륜구동을 기반으로 한 하이브리드 자동차다. 2.5리터 엔진은 사이클 엔진과 전기모터를 결합했다.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운전 습관과 하이브리드 차의 특성을 얼마나 이해하느냐에 따라 실 연비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

기자가 137km 구간을 달리며 기록한 트림 컴퓨터상의 연비는 19.2km/ℓ다. 정부공인 표준복합연비가 12.6km/ℓ(도시 13.0, 고속 12.1)라는 점을 감안하면 인상적인 실 연비다. 하이브리드 차량의 장점인 배터리만을 이용하는 EV 주행모드를 최대한 활용했다. 그렇다고 평균 주행 속도를 무작정 낮춘 것은 아니다. 올림픽대로와 인천 공항고속도로에서는 도로의 평균 주행 속도에 맞춰 운행했다.

녹십자 ‘한타박스’ 24년째 유효성 검증 못해

국내개발 유행성출혈열 예방백신

“약효가 기준에 조금 못 미쳤을 뿐”

녹십자의 유행성출혈열(신증후군출혈열) 예방백신인 ‘한타박스’가 24년 동안 임상시험에서 유효성을 검증하지 못한 채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양승조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양 의원에 따르면, 국내 개발 신약인 ‘한타박스’는 1990년 3상 임상시험을 실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군인 10만명을 대상으로 3상 임상시험을

실시하는 조건으로 허가됐다. 하지만 아직까지 3상 임상을 통해 유효성을 검증하지 못했다.

신증후군출혈열은 제3군 법정 전염병으로 수십 년 전부터 남북한을 비롯해 중국, 러시아, 동남아, 유럽에서 매년 약 50만명의 환자가 발생하고, 그 중 4~7%가 사망하는 질환이다. 국내에선 지난 3년간 1261명의 환자가 발생했고, 이 중 18명(군인 2명 포함)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역학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3년간 백신을 접종했음에도 193명의 환자가 신증후군출혈열에 감염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역학조사자의 16.5%에 달하는 수치. 발병자의 백신접종 여부를 확인하지 못한 경우도 167명으로 14.3%에 달했다.

불고기브라더스, 꽃등심 전문점으로 브랜드 리뉴얼

한우꽃등심 등 구이 메뉴 추가
2만원대 합리적 가격으로 제공

글로벌 한식 브랜드 불고기브라더스가 10월부터 새로운 구이메뉴 추가와 가격 인하 등 대대적 메뉴 개편을 통한 브랜드 리뉴얼을 진행한다. 이번 리뉴얼은 기존 불고기 전문점 이미

지를 업그레이드해 한국인이 사랑하는 ‘꽃등심&불고기 전문점’으로 자리 잡기 위해 기획됐다.

국내산 한우꽃등심과 설화등심, 한우차돌박이 등 한우 구이메뉴를 추가했고, 기존 3만원대의 한우 등심 메뉴(1인분, 150g 기준)를 2만원대의 합리적인 가격으로 즐길 수 있다. 불고기

2000년 식약처는 한타박스에 대한 허가조건으로, 임상시험을 실시하고 1년이 경과한 시점마다 그 중간실적을 식약처로 제출토록 했지만 그로부터 14년이 경과한 현재까지 한타박스의 효과를 검증하는 데 실패했다는 분석이다. 양승조 의원은 “임상적 유효성을 검증하지 못한 채 사용되고 있는 것은 주무당국인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책임을 방기해 온 결과”라고 지적하고 “최근 신증후군출혈열 사망자가 계속 발생하는 상황을 고려할 때 조속한 시일 내 효과 검증 작업을 마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녹십자 관계자는 스포츠동아와 통화에서 “한타박스의 임상시험을 꾸준히 해왔고 약효도 있다. 다만 약효가 기준에 조금 못 미쳤을 뿐이다”며 “현재 식약처로부터 추가 임상시험 지시를 받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재혁 기자 ajapto@donga.com 트위터@ajapto

브라더스 이재우 사장은 “한우꽃등심을 전면으로 부각하는 꽃등심 전문점으로서의 브랜드 리뉴얼을 통해 기존 이미지를 업그레이드하고 메뉴의 품질은 물론 합리적인 가격으로 브랜드 경쟁력을 높였다. 고객들의 욕구를 만족시키고, 최근 어려워진 외식 경기 상황을 돌파하는 새로운 매출 성장 동력을 만들어낼 것이다”고 말했다.

원성열 기자

편집 | 김대건 기자 bong82@donga.com 트위터 @bong82if